

상표법 실전B

56회 이창민 변리사

trademarkqna@gmail.com

[A형과 비교]

1년 차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. 다행스럽게도 A형이 1월부터 한 번도 폐강되지 않아 매달 수업을 할 수 있었고, 감사하게도 수강생분들의 B형 요청이 있어서 B형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.

① A형에 출제하지 못한 최근 대법원판례 및 기타 중요 판례를 담았습니다.

② 최대한 A형과 겹치지 않는 논점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. 다만, 몇몇 기본적인 논점들과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점들은 B형에도 출제했습니다. (사안·표장은 변형)

[공부방법론]

판례와 규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부입니다. 그러나 사례형 문제를 푸는 것은 어디까지나 ‘논리적 글쓰기’를 하는 것이고, 판례는 글쓰기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판례를 잘 이해하고,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뿐,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.

고득점을 위해서는 암기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예컨대 A, B, C 세 가지 논점이 있고 $A \rightarrow B \rightarrow C$ 순서대로 논리적 관계에 있는데 $B \rightarrow A \rightarrow C$ 로 작성할 경우, 학원GS에서는 득점할 수도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을 맞히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X라는 결론의 근거가 x, y, z라고 할 때 사안 포섭에서 xy만 적는다거나 xyz를 불명확하게 적는 경우 실제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.

논리적 글쓰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면, 모든 논점을 알더라도 모두 미흡하게 작성하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나, 논리적으로 글을 쓴다면 시험에 출제된 여러 논점 중 한 두개를 전혀 모르거나, 잘 알지 못하더라도 다른 논점들을 제대로 작성하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암기에 치중된 공부방법 보다는,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암기한 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

[강의내용]

1) 답안지의 형식적 작성 방법을 강의합니다.

- 답안지는 많이 써야만 하는 것인지, 문제의 소재는 어떤 것인지,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내용으로 합니다.

2) 답안지의 실질적 작성 방법을 강의합니다.

-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 특히 사안 작성하는 방법을 내용으로 합니다.

3) 모든 답안지는 강사가 직접 채점합니다. 최대한 꼼꼼하게 채점·첨삭하겠습니다.

[진도표] (메일 주시면 논점 알려드리겠습니다.)

1~8회	전 범위	2시간 쓰기 - 10분 휴식 - 강평
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